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FDA 승인 1주년

월 처방 2260건 '발작 완전 소실' 가치 제공

보험 등재율 80%

美 출시 이후 처방 빠르게 확대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제품 성장
내년 초 한·중·일서 임상 3상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혁신신약 세노바메이트가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1주년을 맞았다.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발작 치료제로, 임상시험에서 '발작 빈도 감소율'은 물론이고, '발작 완전 소실률'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세노바메이트는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약물 투약기간 중에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발작 완전 소실'은 환자의 일상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뇌전증 신약 선택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지난 5월 세노바메이트를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서 자력 출시한 이후 처방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바이오팜 조경우 사장은 1주년을 맞아 "기존 약물을 복용함에도, 계속되는 발작으로 고통 받는 전세계 뇌전증 환자들에게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완전 소실'이라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 기쁘다"며 "세노바메이트를 넘어 R&D 투자를 통해 신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분야 및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상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들과 함께 비대면 영업,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조건 속에서도 세노바메이트의 3분기 월평균 처방건수는 2260건으로, 경쟁 약물들의 출시 초기(월평균 처방건수 1300여건) 대비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했다. 세노바메이트의 보험 등재율(9월 말 기준) 또한 약 80%에 도달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 2월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지역 상업화를 위해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일본, 중국, 한국에서 세노바메이트 임상 3상에 대한 IND 승인을 획득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내년 초 일본, 중국, 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올 겨울패션 3色 트렌드

#짧게 #화려한 #리버시블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상체패션 인기 의류에 친환경·실용성 가치 적용

올해 겨울 패션은 '숏패딩', '화려한 상의', '리버시블' 중에서도만 골라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가지 키워드가 요즘 의류의 특징이다.

구스 다운 등 충전재가 들어가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발열 기능을 적용하는 등 겨울 패션은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워 의류의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만큼 패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대목으로 여기는 철이다. 고가 제품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저격하는 유행 아이템들이 때때로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는 2~3년간 아우터의 절대 강자였던 롱패딩이 지고 짧은 길이의 숏패딩이 뜨고 있다. 통상 패딩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의 숏패딩(70~80cm)과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100~110cm), 그 중간 길이의 미들패딩(80~99cm)으로 구분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은 "이번 2020년 F/W 시즌 숏패딩의 매출이 지난 2019년 F/W 시즌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섬의 숏패딩 대표 제품으로는 랑방컬렉션 '트위드 블록 구스 다운 점



한섬 랑방컬렉션의 '트위드 블록 구스 다운 점퍼' 이미지. /한섬

퍼'가 있다. 트위드 텍스처에 글리터 원사를 부분적으로 믹스해 여성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 제품이다. 또한 캐주얼한 라인으로는 베라인 칼라 탈부착이 가능한 시스템의 '디테처블 칼라 구스 다운 점퍼'와 폼스튜디오의 구스 다운 후드 점퍼 등이 인기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화상회의 등을 할 일이 늘자 바스트 위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디자인의 상의가 늘고 있다.

특히 자칫 심심해질 수 있는 겨울 패션을 재미있게 완성해줄 니트 아이템들이 속속 출시됐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빈플레이디스는 이번 시즌 클래식한 패턴의 니트 스웨터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한해 뜨거운 화두였던 친환경·실용성의 가치가 의류에도 적용돼 '리버시블' 아우터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시지바이오-대웅제약, 줄기세포 활용 재생의료 사업 강화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

시지바이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영역을 강화한다.

시지바이오는 대웅제약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대웅제약 줄기세포제조소에 CDMO하는 방안이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MOU를 통해 제조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글로벌 규정에 맞춘 생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3요소인 세포, 지지체, 성장인자의 바이오 융복합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자가지방에서 유래된 세포들을 전자동으로 분리해내는 셀유닛(Cellunit)에 기반해 당뇨발, 척추, 흉터, 연골 재생 등의 세포기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탄탄히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오른쪽)와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쌓아왔다. 자가지방유래 세포기반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세포치료제 개발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임상 연구, 품목허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최근에 발효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지바이오가 확보한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더해 국내외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한 강력한 인체조직 재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대웅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CMO 및 CDMO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전세계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CDMO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마운티아, 30일까지 전 품목 10% 할인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비와이엔블랙야크관계사 동진레저의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가 '마운티아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운티아는 오는 30일까지 전 매장 과 공식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전 품목 10% 할인을 비롯해 다운과 세트 구매 시 추가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운 자켓을 구매하면 금액별 추가할인해 주는 '다운 할인전'은 10만

원, 2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2만원, 4만원을 할인해주고, 동진FC회원은 1만원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턱다운, 구스다운, 마운티아 프리미엄 에코다운 등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의 제품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트 제안전'을 열어 마운티아가 추천하는 자켓과 베스트 중 2품목 이상을 구매하면 20%가 추가로 할인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발까지 총 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할인전이다. /원은미 기자

HK이노엔, '케이캡정' 몽골·싱가포르 진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한국 30호 신약 케이캡정이 몽골과 싱가포르에 진출한다. 케이캡정은 2015년 중국 기술수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중남미 17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진출하며 해외 판로를 꾸준히 넓혔다. 몽골과 싱가포르까지 더하면 케이캡정은 국내를 포함해 총 26개 국에서 활약한다.

HK이노엔(inno.N)은 최근 몽골 및 싱가포르 현지 제약사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정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몽골에서는 현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 회사인 모노스 파마가 올해부터 10년 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케이캡정을 독점 유통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약품유통회사인 UITC가 출시 후 8년 간 독점 유통한다. 몽골에서는 내년, 싱가포르에서는 2022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세경 기자

이대여성암병원 "일기 쓰기로 암 함께 극복해요"

고잉 온 다이어리 참가자 모집

이대여성암병원은 암 환자 및 가족이 일기 쓰기 활동을 통해 공감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한 달 간이다.

울림푸스한국과 대한암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암 발병 후에도 아름다운 삶은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암 환자나 가족이 4주 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세줄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짧은 글과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일기를 작성하는 참가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응원 상품이 제

공되고, 다른 참가자의 일기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일기와 사진은 향후 책이나 작품으로 엮여 병원 및 온라인에 전시될 예정이다.

울림푸스한국 경영총괄부윤영조 부문장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요즘, 언택트로 실시되는 '고잉 온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통해 암 환자와 가족들이 정서적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